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
언어 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영수 : 안녕, 은미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니?

은미 : 음, 영수구나. 이번 30일에 동아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연극을 하게 돼서, 홍보물을 만드는 중이야. 거기에 넣을 등장 인물을 삽화로 소개해 보려고 해.

영수 : 야! 삽화로? 재미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렸니?

은미 :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야. 잘 그렸나 봐 줄래? 자, 여기 이 인물은 모범생을 그린 거야.

영수 : 큰 안경을 쓰고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게 그렇게 보인다. 잘 그렸네.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은미 : 응, 모범생 친군데, 성격이 정반대야. 공부를 아주 지긋지해 하지. 그래서 공부하라는 소리에 귀를 막고 미치겠다는 것처럼 그렸어. 그렇게 보이니?

영수 : 그래, 잘 그렸네. 그럼 이 두 사람은 무얼 하고 있는 거야?

은미 : 응, 이 두 사람도 성격이 전혀 다른 친구야. 여기 이 사람은 만사가 귀찮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어. 근데 다른 친구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걸로 그렸어.

영수 : 응. 성격이 전혀 다른 느낌이 확 산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얼 한다고 그린 거야?

은미 : 뭐, 동네마다 그런 사람 있잖아, 비밀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느낌이 드니?

영수 : 정말 수다쟁이같이 잘 그렸다. 야, 어쨌든 대단하다. 멋진 홍보물이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친구들도 연극을 많이 보러 올 거야.

은미 : 고맙다. 너도 그때 연극 보러 와.

---

2.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DJ(여) : 오늘은 인기 그룹 '바우와우'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수12 : 안녕하세요. 그룹 '바우와우'입니다.

DJ(여) : 오늘 처음 뵙는데……. 와, 청소년들에게 어필하는 외모에 의상까지, 참 멋지시네요.

가수1 : 뭐, 우리 코디 누님들이 다 꾸며 주신 거죠. (하하)

가수2 : 맞아요. 처음 그룹을 결성한다고 바우를 봤는데, 외모가 참 난감하더라구요.(하하) 너 참 용 됐다, 용.

가수 1: 허걱, 너도 처음에 만만치 않았어. 저도 와우와 같은 팀이 되면 제 외모가 확 살 것 같아서 같이 팀 하자고 꼬드겼어요.

DJ(여) : (호호) 두 분 모두 재미있는 분들이시군요. 그럼 이제 새 음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음반의 컨셉은 뭐죠?

가수1 : 저희 이번 음반 컨셉은 랩의 고급화입니다. 기존 흑인 랩은 아무래도 싸구려 하층민의

것이고 우리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백인들의 고급스런 랩을 가미하여 우리식 랩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DJ(여) : 아, 그렇군요. 이제 음반 이야기 말고 '바우와우'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죠. 두 분 개인적인 취미가 뭔지 궁금하네요.

가수2 : 전 번개 쳐서 랩 동호회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가수1 : 전 방송 없으면 주로 겜을 하죠. 겜 폐인이에요.

DJ(여) : 아, 네. 그럼 방송 들으면서 '바우와우'에 대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거나 지금 당장 멜 날려 주세요. 그럼, '바우와우' 새 음반 중에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

3. 이번에는 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한 말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살다 보면 남으로부터 부당하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상대의 행동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다그치면, 상대방은 그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발끈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여 공격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에서 '나는 너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기분이 지금 어떻다'는 순서로 차근차근 말하면 상대방도 내 이야기에 쉽게 동의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업 마치는 종이 울리면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선생님이 "뭐야? 너희 마음대로 일어서!"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렇게 일어서면 앞에 있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내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말하면 학생들도 아마 다음엔 조심하며 예의를 지킬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말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이 책을 빌려 주었는데 약속 시간 전에 돌려 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불쾌한 표정으로 "야, 여기." 하고 휙 던졌다고 합시다. 이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한번 대답해 볼 사람, 손들어 보세요.

---

4. 이번에는 학술 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말하기 불안은 정도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할 때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장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말하기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부모나 교사와 이야기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거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을 받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말하기 불안은 심해집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말고도, 상황 자체가 주는 부담 때문에 말하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상황에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면접이나 발표, 처음 참석하는 사교 모임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

편 같은 상황이라도 청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불안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적은 수의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말할 내용도 말하기 불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할 내용이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화자는 편안하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부당함을 따져야 한다거나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거나 무언가 요청을 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므로 말하는 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하기 불안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성격이 말하기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말하기 상황을 피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불안을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부담이 적은 상황부터 천천히 점진적으로 경험하면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6] 이번에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술·심층 면접 상황 중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물음에 답하세요.

학생 :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교수 : 자, 긴장을 푸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수 학생은 완벽한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 : 글쎄요, 저는 완벽한 사회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생 :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완벽하게 깨끗해지려고 하면 결벽증 같은 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벽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수 : 지금보다 좀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학생 : 제가 생각하기에는 빈부 격차가 작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호화로운 집들 맞은편에 사는 빈민촌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연탄도 없어서 추운 방에서 겨울을 보내는 천막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빈부 격차를 줄이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수 :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학생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펴야 합니다. 누진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 :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금보다 더 못살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학생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면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통합도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살아야 사회 갈등과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모두 잘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합의하게 되면 수입이 많은 사람도 세금 때문에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